

Sound, Music, Action (공연을 만드는 소리와 음악)

공연에서 소리와 음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장면을 열고, 배우를 움직이고, 관객의 감각을 이끄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. 창작의 영감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운드 디자인, 듣는 감각을 전달하는 방식까지, 소리와 음악적 요소들이 공연의 본질적인 메시지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창작자들의 작업 이야기를 통해 들어봅니다.

일시	2026. 8. 21(금) 오후 2시 ~ 3시 30분
장소	두산아트센터 Space111
강연자	강동훈 (극작가) 2024 DAC Artist로 선정되었다. 현재 사운드울프 아트 디렉터로도 활동하고 있으며, 희곡 <도그 워커의 사랑>, <I'm 파프리카 >, <그게 다예요>를 썼다. 수상 2023 제60회 동아연극상 희곡상 <그게 다예요>
강연개요	리듬과 텍스트 안녕하세요, 글을 쓰고 있는 강동훈입니다. 제 첫 작품 <그게 다예요>의 표지에는 각 챕터의 템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. 슈만이 쓴 환상곡의 구조를 참고했기 때문인데요. 글쓰기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, 저는 텍스트에 내재된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제가 말하는 리듬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패턴이 만드는 리듬입니다. 바로 이 리듬이 작품의 중심이 되어 이야기의 기대감을 만들고, 서사가 흐르게 하며, 인물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제가 실제로 대본을 쓰는 과정을 따라, 글쓰기 안에서 리듬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. 다음으로 악보와 대본을 비교하며, 대본 위에 어울리는 조표를 붙이고, 캐릭터의 음색을 정하고, 선율을 더하는 과정을 나눠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, 작품이 띠게 될 음악성의 맥락과 정확성을 따져보려 합니다. 이번 강연의 목표는 희곡이라는 텍스트에 내재된 음악성을 발견하고, 작가가 움직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것입니다.

1. 리듬과 텍스트

- 시간의 비율
- 음성과 행위
- 패턴

2. 악보와 희곡

- 작품의 조표와 주선율
- 캐릭터라는 음색
- 챕터의 템포와 정념(Affect), 전조와 전개
- 장면의 박자와 조성, 대사의 음정과 아티큘레이션

3. 음악과 맥락

- 때와 장소와 관계
 - 주제와 서사
 - 메타포와 음악
 - 리듬의 고유성과 가능성
-

*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.

*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드립니다.



교육 뉴스레터

Studio DAC POST

(지난 뉴스레터 보기, 무료 구독하기)